

PT & CRITIC 녹취록

일시: 2018.6.30

장소: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참여작가: 김민조, 전다빈

패널: 강석호, 전현선, 한성우

김민선 안녕하세요. 매년 마련되는 PT&Critic은 일 년에 한두 번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의 PT&Critic은 기존의 개인전으로 진행했던 경우와 다르게 2인전을 준비했어요. 참여하고 있는 두 분 작가는 미술계에서 정식으로 활동하기 직전에 놓인 대학원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취지에 따라 저희는 어린 작가와 미술 전문인들을 모시고 회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화 뿐 아니라 시각예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참여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다빈, 김민조 작가입니다. 초대 패널로, 강석호 작가입니다. 이 전시는 강석호 작가가 여러 수업을 다니면서 젊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작가를 선정해서 제안해주신 전시입니다. 오늘 강석호 선생님이 전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합니다. 전현선 작가, 한성우 작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역시 강석호 선생님이 섭외해 주신 패널분들로 두 분 모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막 시작하는 작가들이 활동을 하기에 앞서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바로 앞 세대에서 전시를 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의 조언, 작업 태도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의 사전 미팅을 했고,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참여작가 작업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것이고, 그 뒤에 코멘트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도 여러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다빈 지금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다빈입니다. '말 / 회화', 이 텍스트를 가져온 것은 이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제 작업은 글씨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원래는 회화 내부에 텍스트를 쓰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가진 느낌 자체를 좀 더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종이 위에 나뭇결을 크레파스, 오일 파스텔과 같은 재료로 다양하게 종이 위에 드로잉으로서 시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글이나 생각을 스케치북 위에 이미지로 표현해보는 식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종이를 다양하게 써보고 싶어서 트레이싱지에 시도했구요. 불투명하게 보이는 이런 재질, 질감에 대해서도 회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표현해보았습니다.

텍스트를 쓴 작업도 있지만, 회화처럼 보이는 작업은 이것인데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주검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다.' 옆에는 제가 쓴 글입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그의 주검은 여전히 말이 없다. 이것은 헌정시가 아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동정도 아니다...!' 시처럼, 소설처럼 보이

는 글들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문예부 활동을 하면서 글을 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들을 이미지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텍스트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보편적인 밤>이라는 걸 시도한 거고요.

김인선 아까 그 글은 직접 경험에 의해 쓰는 글인가요? 아니면 상상으로 쓰는 글인가요?

전다빈 제가 일종의 소설을 쓸 때 어쨌든 현실을 기반으로 창작을 하거든요. 지금 읽어드린 것도 제 경험이 어느 정도 들어간 글입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썼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책을 뜯어서 드로잉을 하게 됐습니다. 구입한 중고서적을 펼쳤는데 그 페이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걸 뜯은 다음에 이미지로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한 작업입니다. 강석호 선생님이 이 작업을 더 큰 이미지로 해보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걸 듣고 제가 큰 작업으로 옮겨보게 됐습니다. 크게 그리다보니 텍스트가 모자라져서 위에는 책의 내용이고 밑에 두 줄 정도는 제가 쓴 글을 섞어서 했습니다.

<겨우 존재하는>은 텍스트가 없는 작업인데요. 제가 텍스트를 넣기 전에 이런 덩어리들로 텍스트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다 담지 못한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덩어리를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빙하인데요, 말도 녹았다가 얼었다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지점이 빙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요. 후에 이미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빙하뿐 아니라 유기적 생명체도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행성> 작업이 나왔어요. 연작으로 했던 것입니다.

<밤에 대해서>는 걸려있는 작업인데, 작은 작업과 연작이에요. 작은 것 두 개는 작년에, 이거는 신작으로 한 것인데요. 제가 밤에 안경을 끼지 않고 밤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조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조입니다. 저는 줄곧 어떤 우연적 현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주목하지 않는 것에 관한 작업을 합니다. 사물, 인물, 건물 등 다양한 것들의 단면을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 작업은 제가 처음에 콜라주 하는 것을 실험했던 것입니다. <손수레>는 여러 시간의 이미지를 합쳤을 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재밌어요.

<물총놀이> 작업을 하면서는 제가 화면에서 재구성을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기대하는 무엇이 있는 것으로>에서는 주변의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두 장소가 작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과 학교 주변의 공간이 나의 회화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개인적 장소가 2017년 작업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눈 같은 것 혹은 추적추적 비가 내린 길을 그리고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모든 것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제가 관심있어 하는 것들과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미>는 제가 집에 있다가 집 학교 집 학교 오가는 와중에 메모장에 기록한 작업입니다. 1년 동안 지속되는 것인데, 더 많은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당하산의 소문>입니다. 저희 동네 이름이 당하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이 지금은 재개발되어 없는 유명산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문이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소문과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직접 촬영하고 가져와서 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추적추적한 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요즘에는 장소보다는 사물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목적 적으로 생긴 것이라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빛과 그림자로 모든 것을 환원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작업은 이제 과거에는 톤을 일정하게 했다면 큰 붓을 가지고 그리면서 전보다는 스스로도 그림이 더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특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장소잖아요. <마주친 순간>에서는 그런 순간을 다룹니다. 많은 작가들이 다루기도 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을 기반으로 작업했습니다.

<흔적>, 이 작업은 학교 돌아다니다가 풀숲에서 뭔가가 있던 자리인데,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의 동그라미 자리에 앵무새를 그렸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서 추상적 형태로 바꿔서 그려보았습니다. <순간의 시간>의 경우 직접 찍은 사진을 그리는 건 아니고, 가끔 봤던 영화중에 마음에 드는 장면을 가져와서 그리거나, 상상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뒤편 어디쯤>은 아예 상상을 가지고 구성한 건데, 필요할 때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기도 하구요. 아르바이트하는 곳을 가기 전에 담 넘어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너머에 공을 봤어요. 누구의 공일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했어요. 어딘지 확실한 표정이나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림짐작이 가능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상상을 기반으로 하되, 너무 주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제목은 <굴러 들어간 공>입니다. 그림 그리면서 생각했던 게 액체가 되어 버리고 추적추적한 걸 그리는 게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경험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전현선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김민조 작가 작업을 보면서, 일상적 장소를 오가면서 맞닥뜨린 낯선 대상을 보고 앞뒤의 맥락을 상상으로 생각하고 회화적 표현으로 연결하는 지점에서 흥미를 느꼈어요. 색감, 붓질 등이 다양한데, 탁한데 그걸 이용하거나 붓질을 겹쳐서 유동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전다빈 작가 작업을 보면서, 저도 소설이나 시를 보거나 단어를 보거나 언어적 요소가 이미지를 만들 때 자유로움이나 풍부함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긴장감을 이용하는 것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다빈 작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업을 보면 조형적 효과나 번지기, 문지르기 등을 통해 형상을 만드는데, 그런 방법은 처음에 형상과 형태 이미지를 생각하고 조절하면서 그려내는지, 우연적이고 직관적으로 힘의 조절이나 감각적인 것을 위해서 회화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전다빈 크게 한 작업은 어찌 보면 형상이 많이 없어진 형태예요. 형상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성우 제가 어떻게 작품을 보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품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주관적 생각이겠지만 저는 이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작업 전반에 걸쳐서 두 분이 일관적인 흐름이 뭘까 하면서 봤는데요. 김민조 작가의 경우에는 계단에 올라오면서 본 <비닐 까마귀> 작업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 상황에 집중하게 됐을 때 상상하게 되고 그런 출발점에서 작가님이 마치 어떤 대상을 지나치면서 보는 것 같은 시작점이 그걸 대신 경험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늪에 대한 비유라든지, 빛과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상을 추상화해서 작업하는데, 어떤 작업은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있고, 어떤 것은 환상이나 상상이 개입돼서 그려진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작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색깔도 그런 느낌인데 그것들이 뭘까 생각했을 때 원근법적인 화면의 구도 시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완전히 뭔가 현실과 배제된 나만의 상상, 환상으로 가는 걸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앵무새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림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작가가 그림 안에서 그리고 싶어하는, 담고 싶어하는 일관된 정서라든지, 늪과 같은 끈적끈적하고 흘러내리는 같은 재구성된 동화처럼, 환상처럼 보이는 화면이었어도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전에 잡고있는 현실이라는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림 안에서 상황을 만들 때에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김민조 현실과 환상을 오가긴 하는데, 꿈 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해도 나는 어차피 현실에 있고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작업에서도 소재 같은 것이 일상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도피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내가 처한 현실에서 환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심리랑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전현선 그것과 연결해서 예전 작업을 봤을 때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색감도 더 다양해서 환상 같았는데, 이것들을 통해 결국 현실을 가리키고 싶어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작가 스테이트먼트에 '액체화된 현실'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김민조 바닥이 딱딱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로로밖에 볼 수 없는데, 끈끈한 발이 폭 빠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늪, 비가 내린 추적추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 내리면 방에 이끼가 피어오르고, 단단했던 길도 폭신해지고 딱딱한 쇠도 녹이 스는 등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또래 작가가 다 현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내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제가 겪은 것과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딱 이거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한성우 전다빈 작가님 작업을 얘기하자면 가장 유심히 본 게 <불일치>라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불일치'라는 단어고, 그 불일치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회화와 말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고 하는데, 작업을 봤을 때 그 화면 안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있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소행성과 같이 좀 더 그냥 회화 안에서의 그냥 자기 지시성이 드러나는, 화면의 조형적 요소가 드러나는 작업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에서 출발한 계기가 있는 반면에, <밤에 대해서>같은 작업의 최초 모티프는 회화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텍스트 기반으로 작업할 때 재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별개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나요?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서 글과 이미지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행위인데 작업하시면서 두 행위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거나, 쓰기에서는 가능하진 않았는데 그리기에선 가능했던 경험이 있으면 경험담을 좀 들려주세요.

전다빈 <불일치> 같은 작업은 그런 고민에서 한 게 맞아요. 뜯어냈다가 한참 두고있다가 하게 된 작업인데, 책 같은 걸 읽으면서 한 게, 소설을 그린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림도 '적을 수'도 있겠다는 발상을 표현해보자는 취지도 있었어요. 잘 안될 때도 많고, 실험처럼 해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일치>로 했어요.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벽을 치워서 보여준다는 느낌이 그럴 때 마다 드는데, 중첩되는 뭔가를 찾고 싶어요. 제가 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서,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으면서도 동시에 몰라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것이 그림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현선 이야기를 듣다보니, 의문이 드는데요.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이미지화하는 화면에서는 글에 대한 것이 제시되지 않는 방식, 혹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제시하는 방식, 그리고 글자를 그림 그리듯이 그런 요소로 쓰는 방식 등 다양한 갈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도 전다빈씨가 더 가져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전다빈 다 같이 동시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치우치게 되면 다시 가져와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큰 거 같거든요. 텍스트만 생각하고 이미지만 만들면 이미지가 떠돌고, 그 반대에는 텍스트가 불쑥 끼어드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같이 맞춰 나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한성우 전다빈 작가 쓰는 재료는 트레이싱지 등 보관의 측면에서 용이하지도 않고, 물감이나 재료를 잘 흡수하는 재료라기보다는 튕겨내는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재료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전다빈 저는 주로 오일 파스텔이나 크레파스를 쓰는데, 드로잉에서 재미를 느껴서 시작을 했어요. 이합장지에 크레파스를 쓰면 종이에 질감이 생기잖아요. 그런게 말하지 않아도 튕기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지점을 느껴서 잉크나 색연필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가리지 않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종이가 약간 오래 되서 바래잖아요. 그 느낌도 너무 좋더라구요. 사람도 나이 들어가듯

이 종이도 변해가는 게 좋아요. 사람과 비슷하다 생각해서 트레이싱지도 구겨진 채로 남아있고 그런 게 사람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한성우 작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모양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군요.

질문자 전다빈 작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텍스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읽거나 쓰거나 할 때 감정이나 감정적인 것을 재현하려는 건지 텍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인지. 그 단어 자체인건지, 어떤 것을 이미지화 하는지 궁금하고.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전다빈 제가 그 부분에서 다른 관객이 제 그림을 봤을 때 텍스트로 읽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가진 의미랑 관객이 가진 의미가 다른데, 그걸 설명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불일치>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림에서 쓴 단어나 소설이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좀 건조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저는 괜찮거든요. 그냥 이 텍스트를 읽고 싶어할 땐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질문자 전다빈 작가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발표 들으면서 글씨를 이미지로 환원하고 그림으로 쓴다는 말을 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위에는 글씨를 썼고, 소설 글이랑 작가가 쓴 글을 같이 썼다고 했는데, 그림에 글을 쓴 이유가 뭔가요?

전다빈 크게 옮겨가니까 글씨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은 글씨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은 텍스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적으로 읽히기를 바랬어서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질문자 전다빈 작가에게 저도 질문있는데, 텍스트와 이미지를 붙일 때 착 붙는 형식은 일러스트레이션이잖아요. 사물, 기사, 말 상황 자체가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풍부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아까 전다빈 작가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인데, 텍스트랑 이미지가 붙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궁금해요.

전다빈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때는 읽은 책이나 남의 글이나 장면을 봤을 때 이미지가 더 치고오고요, 이미지가 좀 더 정해지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져오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무거워지잖아요. 남의 것을 보고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쓴 텍스트로 했을 때는 더 시도를 많이 하는. 비례로 따져보면 판단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제 글을 먼저 시작할 때는 텍스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달려오고. 다른 경우 기사를 읽는다든지, 책,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을 정리할 때는 이미지 색깔 이런 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현선 언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그리나요? 어느 정도로 드러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더하고 뺄 것인지 그런 과정의 연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민조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느 정도에는 가까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다가가면 흥미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림짐작이라는 걸 가지고 은유적 언어를 즐겨 쓰는 편이에요.

전현선 실질적으로 물감이나 표현방법에 있어서의 완성되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나요?

김민조 그런 걸 전제하고 그리지는 않고 그냥 그리다가 그 순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이 오면 그냥 끝내는 것 같아요. 여기 나는 애초부터 여기까지 하면 끝내야지 이런 게 없고, 그리다보면 이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해요. 언제 끝내는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성우 약간 비슷한데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작업하다가 이렇게 망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전다빈 작가 경우에도 수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다 망친 거는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드나요?

전다빈 저는 실패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좀 덤빙대고 그래서 야교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늘 종이에 뭐가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림의 하나처럼 해서 편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우연히 색을 섞다가 튀었는데, 이게 원래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떨어졌을 때 아 모르겠다 하고 해버렸을 때 오히려 이미지적으로 그게 더 좋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들 친구들이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뭔가 계속 하나씩 나오고 고치면서 완성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전 작품들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계기도 생겼어요. 우연적이긴 하지만 그런 지점도 재밌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민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흐름이 끊기면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덮거나 뜯어버리는데, 마티에르 그런 거를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실패한 그림을 덮고 다시 그림으로써 부적처럼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런 개인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한성우 수정이 가능한 선이 있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작업이 있는데, 저도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할 때 혼란스럽거나 할 때 거꾸로 생각해볼 때가 있어요. 이것만은 보여주기 싫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다빈 작가도 그렇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생기는 화면 위에서의 일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다빈 작가는 우연성을 더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개입을 해봐서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해봤을 때, 작업의 전 과정이 우연적인 시간, 공간, 거기에 작가님이 뛰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조 작가 경우도 이미지를 가져와서 화면 안에서 구성하기까지의 부분과 칠해 나갈 때의 부분이 조금 더 감정이라든지 붓질에 있어서 딱 짜여져 있는 것이 두 분 다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우연성이라는 부분은 모든 회화 작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손에 익는 부분, 그럴 때는 우연성 자체가 주제가 되어버리는 경우에, 비판을 하자면, 손에 익고 스타일화되는거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계가 미묘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작업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이것들을 한편으로는 일종의 체화 혹은 나만의 그리기 방식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연적인 것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민조 우연성은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종의 숙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계속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다빈 우연성이 단어 자체도 통제된 우연이든 아니든, 그냥 통제되면 통제가 됐던 거고 우연이면 필연이 됐다가도 다시 우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너무 고민하는 것도 너무 통제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인선 강석호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작가와 패널 다 추천 해주셨어요. 작가 한명은 좀 구상적이고, 한명은 우연적 효과를 다루는 추상에 가깝죠. 패널 두 분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성우 작가도 추상적인 작업을, 전현선 작가는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구상적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의도에 대해서. 나란한 매치를 했지만, 세대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도를 좀 이야기해주세요.

강석호 몇 개월 전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시의 의도가 바뀌었어요. 원래 의도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거죠. 제가 성격이 그래요.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현선, 한성우 작가를 불러야겠다 해서 하기로 했는데, 하고나서 혼자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나 혼자 할까 그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입이 두 개였는데 네 개가 되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명이 되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자꾸 일어나더군요.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뭔가 말하는데 생각은 하긴 하는데 말로 하는 순간 헛나오는 일이 많잖아요. 생각은 이어 진다기 보다 풍선처럼 뭉개뭉개 일어나는 건데 말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림도 생각이 뭉개뭉개 있는데 그걸 자기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나간다고 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어색하죠. 그걸 보는 사람도 어색하구요. 그 어색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말들이 많아지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단어가 별로이긴 해요. 컨템포러리 아트 보다는 '지금의 미술'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지금의 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의 미술에 회화라는 장르가 적합한가 이런 고민을 해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장르 자체가 속도감이 느려요. 다른 매체는 속도감이 빠르죠, 우리가 변화하는 거.

페이스북을 하던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성보다 회화라는 장르는 골방에 앉아서 정지된 화면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지금 세상의 속도에서는 너무 느린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잘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과연 지금의 미술에 잘 반응을 하고서 그걸 회화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뭐 사실상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 생각은 전다빈, 김민조 작가한테 맞춰준 것 같긴 해요. 그게 웃긴 거 같아요.

2008년에 우리 동네에 이사를 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b형간염 항체가 없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 오래요. 문자 준대서 다시 갔는데 또 맞았어. 6개월있다 또 맞고, 마지막 접종은 1년 있다가 또 오렸는데 문자가 안오는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문득 지금 내 몸엔 항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방주사를 놔주진 못합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항체가 있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거는 그래도 지금의 미술에 있어서 본인의 위치하고, 본인이 다뤄야 할 색깔이나 성격이라든지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전시가 그런 거에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두 명은 왜 묶었느냐, 왜 선정했느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하고 이 작가들이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추가로 전다빈 텍스트 이미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텍스트는 글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조형언어를 말하는 거죠. 정보를 말하는 거지 글자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분해서 써야 돼요.

질문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조형적인 그림이 편한 사람이고, 추상적인 그림이 어렵거든요. 전다빈 작가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그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추상적 그림에 있어서 완성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전다빈 저는 완성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나중에 저에게는 실패로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 추상화라고 단정 지으면 제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재현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추상으로 다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구요. 말하고 싶은걸 보여주는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질문자 완성이 강하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림을 그리다가 손을 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에 민망하지 않은 단계. 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벽에 걸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단계?

전다빈 저는 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마르는 과정까지는 전혀 완성됐다는 것을 모르는데, 마르고 난 뒤를 봐요. 그때 그냥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감각적으로 아실 거 같은데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거 같아요. 저대로 그냥 저는 단계가 있는 거구요.

김인선 한성우 작가는 언제 완성인가요? 어떤 작가는 운송직전을 작품 완성 시가라고도 하던데요.

한성우 뭔가 완성이라는 게 그림에서 뭐 없잖아요. 없다는 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더라도 나왔을 때 완성이 아니고. 그냥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자기 균형인 것 같아요. 더 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한성우 저는 별개로 강석호 선생님 말씀 듣다 생각난 건데요. 제 고민이기도 하고. 두 분 작가 작업을 보러갔을 때 작업이 되게 다른 방식의 보고 읽기를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민조 작업이 더 익숙했어요. 이미지나 도상이 다가오는 정서가 있어서 접속해 들어가기가 저한테 더 쉬웠던 거 같고.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저한테도 항상 고민이에요. 작가님이 추상 말씀하시고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재현과 비재현적인걸 말하는데. 그거는 추상 구상과는 또 다른 얘기인거 같기는 해요.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없다고 해서 추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또 그림을 읽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혹시 강석호 작가님은 구성을 하셨으니까 그런 그림을 볼 때 뭔가 제 생각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읽어내는 방식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식일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경로로 이 그림을 읽어나가는지 그런 게 작가로서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거구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저도 제가 추상화인가 했을 때 난감한 부분도 있어요..

전다빈 소설을 같이 썼던 친구가 와서 그림을 와서 보고 얘기한 게, 그걸 보고 물고기가 있는데 돌을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읽어주는 거죠. 그 친구가 그의 해석으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해줬다는 게. 어쩌면 제가 원해서 한 형상이나 비재현적 이미지나 그런 자기만의 그림을 보고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가는 걸을 제가 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인선 한성우 작가에 덧붙여서 저도 질문을 할게요. 추상이라고 하는데 대한 거부감을 밝혀주셨어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강석호 선생님이 예전과 추상이 달라졌다는 언급을 했었어요. 추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미술에서 읽었으면 좋겠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호 추상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어색하잖아요. 평상시에 그런 걸 본적도 없고. 단색화 아니면 80년대 한국화. 그런 거 아니면 뭐 외국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추상이라고 알고 있기는 하죠. 지금에서 추상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나마 살맛이 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새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카페트에 오줌 싸고 구멍도 내고 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맨날 나오면서 끌어안고 그러는데. 내가 요새 늙었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강아지가 아니라 그게 내 애였는데, 애

가 나한테 말을 많이 하면 이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4살짜리 애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래도 이쁘겠죠? 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들면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로서 풀어낼려고 하다보니까 추상 구상을 붙이는 결과가 되는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너는 책을 그만 읽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번 최근 읽은 책의 내용대로 말을 하다보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리버츠키라고 하는 미학 심리학자의 글을 읽었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에 대한 글을 썼는데 과연 말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생각에 가까운 거 같아요. 아님 행동에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말은 행위라고 말해요. 관념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는 행위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를 한다. 근데 두 작가의 작업을 봤을 때에 말이 행동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님 말과 사물이 연결된 사람인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아직까지 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리버츠키는 이미 100년 전 사람이고. 지금의 미술에서 추상이나 구상이나 논하기 전에 생각, 관념을 통해 만든 이미지 심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예전엔 취미가 중요했지만, 모든 걸 통해서 어떤 제스처로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말이 말이나 말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 전에 사스날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작업을 보여줬는데 플랜카드에 직접 그린 게 있었는데. 그걸 구글에다가 쳐서 글자 무슨 말인지 쳐봤더니 그 그림이 안 나오고 트럼프 페이스북이 뜨는 거예요. 그걸 뒤져서 그린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의 제스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회화라는 게 뭐가 되기는 되는구나! 가능은 하구나 이런 생각이요.